

[영화]



영화 '라디오 스타'의 한 장면과 동명의 뮤지컬에서 박중훈 역을 맡은 가수 김원준(맨 오른쪽).



영화, 뮤지컬로 가다

'미녀는 괴로워', '라디오 스타', '색즉시공', '싱글즈'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. 꽤 많은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라는 점과 뮤지컬로 만들어졌다는 점. 최근들어 영화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들이 속속 뮤지컬로 제작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. 이른바 '무비컬'(무비+뮤지컬) 바람이다.

오는 27일 첫공연을 진행하는 '미녀는 괴로워'에는 스타급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 기대감